

르고 있는 듯한 인상도 받았다. 그가 지금까지 그 많은 선행에 사용한 돈은 결코 없어졌거나 버린 돈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돈만이 참다운 정 이사장 자신의 재산이고 지금 정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그가 많은 액수의 돈을 썼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지어준 건물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가슴 속에 영원히 아로 새겨져 있을 것으로 믿는다. 누가 그랬던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정 이사장께서는 자기의 빛나는 이름을 영원히 남겼으니 가히 성공한 삶을 누린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젊은 학창시절에 배운 “예술은 길고 人生은 짧다”, “시간은 金이다”, “좋은 서둘러라”는 등의 격언을 행동지침으로 삼아왔으나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건강과 시간이 아쉽다.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분의 아름다운 삶에 신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한다(한인규 · 이동녕).

## 훈훈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명예교수들의 제자 사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3호 편집위원회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소속 여러 명예교수님들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극진하다고 소문이 났다.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아낌 없는 나눔의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정년퇴임 후에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장학금이나 상금으로 투입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제자 사랑 얘기는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생물교육과 소속 이웅직, 김준호, 장남기, 정해문 명예교수님 네 분의 제자 사랑 미담을 소개하기로 한다. 추후에 교내 다른 학과 명예교수님들의 장학금 기탁 소식도 접수되는대로 계속적으로 이 회보에 소개하기로 한다.

### 1. 고 이웅직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식물학과에서 이학 박사를 취득한 후

에 평생을 생물교육과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1989년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이웅직 교수가 작고한 후에 장남(이남규,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이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2003년 생물교육과에 “이웅직 교수 장학기금”으로 대학발전기금에 5,2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현재는 매 학기 생물교육과 학부생 1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2. 여천(麗泉) 김준호 명예교수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식물학과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김준호 교수는 줄곧 자연과학대학 식물학과에서 봉직하다가 1995년 이 학과에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정년퇴임 후 (사)여천생태연구회에 기금을 출연하여 ‘여천생태학상’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여천생태학상은 2008년부터 생태학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50세 미만의 생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상금은 1천만 원이다. 김준호 명예교수님은 서울시 중구 소재 중·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한 오피스텔 두 채(한 채는 김준호 교수 명의, 다른 한 채는 사모님 명의)를 분양받아 이를 2005년 (사)여천생태연구회에 기부하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여천생태학상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 3. 적심(的心) 장남기 명예교수

장남기 교수님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한 후 일본 도후꾸대학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장남기 교수님 역시 평생을 모교 생물교육과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2002년에 이 생물교육과에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2008년 모교 생물교육과에 ‘장남기 교수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장학기금으로 매 학기 생물교육과 학부생 1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4. 정해문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해문 교수님께서 귀국 후 줄곧 모교에서 교수생활을 영위하다가 2006년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그는 2006년부터 생물교육과 후배들을 위하여 ‘정해문 교수 장학금’으로 매년 200만 원씩 10년간 기부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